

ABOUT GALERIE QUYNH

Galerie Quynh was founded in 2000 by Quynh Pham and Robert Cianchi as a non-profit online educational resource that documented and archived the Vietnamese contemporary art scene. A physical space dedicated to a dynamic rotating program of exhibitions opened in December 2003. For over two decades, Galerie Quynh has operated as a hybrid space: a contemporary art gallery and an institution that serves its community through public and educational programs. Collaborating locally and internationally with artists, curators and cultural organizations with diverse creative voices, the gallery has also initiated a number of not-for-profit artist-run community projects such as Sao La led by Nguyễn Kim Tố Lan and Tùng Mai, and CăRô spearheaded by curators Thái Hà and Linh Lê.

갤러리 퀴न्ह

갤러리 퀴न्ह(Galerie Quynh)은 21년 전 베트남계 미국인 미술사학자 퀴팜(Quynh Pham)과 영국인 예술가 로버트 치안키(Robert Cianchi)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설립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컨템포러리 아트의 현장을 문서화하고 기록하는 비영리 교육 아카이빙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점 현대미술 전시 공간은 물론, 예술가들을 위한 재정적·법적·직업적 지원, 전문적인 작품 보존 및 취급 시스템, 비평가와 작가들의 참여 등 현지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갤러리 퀴न्ह과 함께 한 작가들뿐 아니라 장단기로 함께 일해온 인턴 및 직원들 역시 현재 학자, 큐레이터, 갤러리 디렉터, 음악가 등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84 28 3822 7218
info@galeriequynh.com
www.galeriequynh.com

118 Nguyen Van Thu, Dakao,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호치민시 1군 다카오, 응우옌반투 118번지

ART BUSAN

GALERIE QUYNH – BOOTH C28

9 – 11 MAY, 2025

TUAN ANDREW NGUYEN

b. 1976, Ho Chi Minh City, Vietnam

Tuan Andrew Nguyen explores the power of memory and its potential to act as a form of political resistance. His practice is fueled by research and a commitment to communities that have faced traumas caused by colonialism, war, and displacement. Through his continuous attempts to engage with vanishing or vanquished historical memory, Nguyen investigates the erasures that the colonial project has brought to bear on certain parts of the world. Through collaborative endeavors, he explores memory as a form of resistance and empowerment, emphasizing the power of storytelling as a means for healing, empathy and solidarity. While Nguyen works between various mediums, he often produces moving-image works and sculptures.

투안 안드류 응우옌
1976출생, 베트남 호치민

투안 안드류 응우옌(Tuan Andrew Nguyen)의 작업은 기억이라는 비물질적 자원을 통해 정치적 저항과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여정입니다. 식민주의, 전쟁, 그리고 강제 이주의 트로마를 경험한 공동체에 대한 깊은 연구와 연대의 태도가 그의 예술적 실천을 이끌어갑니다. 응우옌은 소멸하거나 소외된 역사적 기억과 집요하게 마주하며, 식민주의 프로젝트가 남긴 지워진 흔적과 공백을 끈질기게 파헤칩니다. 그는 협업을 통해 기억을 저항과 권한 부여의 장으로 확장시키며, 이야기를 통한 치유, 공감,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의 힘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그의 작업 가운데에서도 특히 영상과 조각은 잊히거나 지워진 기억을 시각화하고 물질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57mm #1 - Untitled
57mm #1 - 무제

2024

engraved 57mm brass artillery shell (F5, 685.76Hz), stainless steel cable with attached wooden mallet, pounded brass artillery shells, brass rods, powder coating

문양이 새겨진 57mm 탄피 (F 코드, 685.76 Hz) , 나무, 망치가 부착된 스테레스강 케이블, 두드려 만든 놋쇠 포탄, 놋쇠 막대, 분체도장

198 x 130 cm

WILL THURMAN

b. 1989, New York, USA

Populated with hybrid characters - creatures part human, part animal, part object - Will Thurman's paintings reflect a disorienting state of existence. The deluge of storylines sends us tumbling through a parallel universe not quite distinct from our own, where the comedic blends with the downright bleak and sadistic. Many of his canvases contain paintings within paintings - mise en abyme that draw attention to the plethora of lenses through which a single story can be told, and retold, and retold. Thurman is meticulous in his expression; for the artist painting is disciplined, routine labour. Yet despite such control over his own practice, his artworks offer a singular freedom: to place oneself within his scenes, navigate the topsy-turvy landscape, and intervene in their happenings.

윌 서먼
1989 출생, 미국, 뉴욕

인간, 동물, 사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존재들로 가득 찬 윌 서먼(Will Thurman)의 회화는 혼란스러운 존재 상태를 반영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은 우리를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뒤틀린 듯한 평행 우주로 이끕니다. 그곳에서는 희극적 요소가 암울하고 가학적인 정서와 뒤섞이며 독특한 서사를 이룹니다. 윌의 많은 작품은 '회화 안의 회화(mise en abyme)'인 액자 구조가 등장하여, 하나의 이야기가 다양한 시각을 통해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표현은 치밀하고, 그에게 그림 그리는 일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엄격하고 숭고한 일상입니다. 그리하여 그림의 표현은 치밀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함의 결과로 그려진 윌의 그림은 아이러니하게도 관람자에게 오히려 독특한 자유를 부여합니다. 그림 안에 나를 투영하여, 뒤죽박죽인 풍경을 거닐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직접 겪어내도록 초대합니다.



A Fine Pair
근사한 커플

2022

oil, charcoal, pencil, ink on canvas
캔버스에 유채, 목탄, 흑연, 잉크
50 x 60 cm

LIEN TRUONG

b. 1973, Saigon, Vietnam

Lien Truong's practice examines cultural and material ideologies and notions of heritage. By fusing painting techniques, materials and philosophies, and military, textile, food and art histories, she creates hybrid forms interro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esthetics and doctrine and addresses the dynamics of domination, assimilation, and resistance across cultures. Truong often incorporates practices like embroidery and silk painting to dissect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history, investigating the influences that shape contemporary identity and belief systems.

리엔 트롱
1973 출생, 베트남 호치민

리엔 트롱(Lien Truong)은 문화적·물질적 이데올로기와 유산 개념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회화작가입니다. 다양한 페인팅 기법을, 재료와 철학에 융합하고, 군사, 텍스타일, 음식 그리고 예술의 역사를 아우름으로써, 미학과 원칙 사이의 관계를 성찰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창조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 간 지배, 동화, 저항의 역학을 고찰합니다. 트롱은 자수, 실크 페인팅과 같은 베트남의 전통기법을 적극적으로 서양회화에 도입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를 해부하고, 현대 정체성과 신념 체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면밀히 탐구합니다.



Camo Chronicle: France-Germany
위장연대기 - 프랑스와 독일

2022

oil on panel
패널에 유채
40.6 x 50.8 cm